

# 익산시 민유양묘시설 현대화

### 산림청 공모사업 선정... 총 1억1700만원 확보 재해율 저감·묘목 생산량 증대 효과 기대

익산시가 산림청이 실시하는 2018년 민유양묘시설 현대화공모사업에 보람농원(대표 김상우)이 선정되어 국도비 1억1,700만원(국비9,000만원, 도비2,700만원)을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

보람농원은 지난 9월 28일 전국 11개소 생산자가 참여한 가운데 열린 산림청 2차 공모심사에서 양묘시설 현대화사업 대상자로 최종 선정됐다.

이로써 시는 올해 실시한 산림청 공모사업에 두 번 모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공모사업은 민간 묘목생산의 자동화·현대화를 통해 그동안의 노동력 의존형 묘목생산 구조를 개선

하고 재해에도 안전한 묘목생산시스템 구축해 안정적이고 우수한 묘목 생산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3억원으로 삼기면 서두리 농장에 자동화 4연동하우스(2,000㎡) 및 저장시설·작업장(165㎡)을 신규로 설치하고 상토·종자 과정 자동화설비, 스키로우더 구입 등에 투입하게 된다.

이번 사업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관수·토양 등 인위적인 생육환경 조절이 가능해져 재해율을 대폭 저감할 수 있고 묘목의 생산량 증대와 우량묘 생산으로 활착율이 향상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친환경 자동화된 시설에서 작업능률 향상과 작업자들의 복지증

진에도 기여할 수 있는 등 1석3조 이상의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시는 선정된 보람농원이 매년 100만본 이상 도내 각 지자체에 지정 묘목을 공급함에 따라 우량 묘목을 동일 가격으로 안정적으로 납품받을 수 있게 되어 향후 도내 조림사업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보람농원 김상우 대표는 "민유양묘 시설 현대화사업에 선정되어 기쁘다"며 "자부담을 더 투입해서라도 최신 자동화 설비와 장비를 갖춰 전국에서 으뜸가는 양묘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선천으로부터 3대째 양묘업을 이어온 김상우 대표는 1985년 2월부터 현재까지 산림묘목을 30년 넘게 생산해왔으며 현재는 아들과 함께 3만평에 달하는 보람농원을 경영하고 있다.

/익산=장영원 기자



군산새만금전국걷기대회가 오는 14일 비응공원 일원에서 개최되는 가운데 사진은 지난해 대회 자료사진.

## 세계유일 바다 위 걷기대회 '이름값'

### 군산새만금전국걷기대회, 14일 비응공원에서 개최 총 66km 코스 13시간 내 완주해야 인증서 획득

올바른 걷기 운동을 알리는 행사와 더불어 지역관광자원과 연계하여 건강 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군산새만금전국걷기대회'가 오는 14일 새만금 방조제에서 진행된다. 군산새만금전국걷기대회는 새만금 비응공원을 출발하여 부안 새만금전시관을 돌아오는 총 66km 코스로 진행되며 국제걷기연맹과 대한걷기연맹이 공인한 한국그랜드슬램대회에 속하는 메이저급 걷기대회다.

KWF한국그랜드슬램대회란 전국

의 걷기 마니아들을 위한 걷기대회로써 제주대회(250km)를 시작으로 원주대회(100km), 낙동강대회, 새만금대회 등 4개 대회를 1년 안에 연속으로 참가하여 모두 제한 시간으로 완주한 마니아들에게 '한국그랜드슬램워커'라는 인증서를 제공하는 대회를 말한다.

'한국그랜드슬램워커' 인증의 마지막 관문인 군산새만금전국걷기 대회는 6.5km, 13km, 33km, 66km 등 총 4가지 코스로 진행되며 66km 코스는 13일 21시에 출발하

여 13시간의 제한시간에 완주하면 인증서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해를 거듭할수록 군산시민은 물론 전국에서 대회를 찾는 참가자들이 늘어나면서 전 세계 유일의 바다 위 걷기대회는 명성을 실감하게 된다"며 "66km 코스를 걸어야 하는 만큼 힘들지만 높은 성취감과 운동효과에 미소 지을 수 있는 대회가 될 것"이라고 이번 대회에 대한 의미를 밝혔다.

한편 이번 대회 접수는 13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재)군산시걷기연맹(446-1061) 또는 홈페이지(www.gswalking.com)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군산=김관곤 기자

# '채만식 문학관' 도지사 단체표창 수상

###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 등 국어순화 기여 공로 인정받아

전북도가 훈민정음 반포 571돌을 맞아 개최한 '한글날 기념식'에서 군산시 채만식 문학관이 국어 순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도지사 단체표창을 수상했다.

1930년대를 대표하는 한국의 문학가인 채만식 작가의 작품은 풍자와 해학의 표현 기법이 두드러지고, 생소한 근대 국어 표기는 물론 상당 부분 전라도 사투리로 서술되어 학교에서 작품을 배우는 학생들과 일반 독자들이 작품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따랐다.

채만식 문학관에서는 이러한 점에 착안을 두어 작품에 등장하는 근대 국어 표기와 사투리를 발췌하고 자료로 만들어 단체관람객들에게 배부하여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알기 쉽게 들려줌으로써 독자들이 작품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해 왔으며, 이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표



군산시 채만식 문학관이 '한글날 기념식'에서 국어 순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도지사 단체표창을 수상했다.

창 수상의 영예를 안을 수 있었다는 평가다.

김봉곤 문화예술과장은 "채만식 문학관은 작가의 풍자와 해학에 등장하는 관소리 문학을 가미한 사투리와 일제식민지 하에서 국어처럼 쓰이던 일본말 용어집을 제작하여 관람객들에게 배부하고 대대적인 해설도 실시할 방침"이라며 채만식 문학관의 향후 운영계획을 밝혔다.

한편 채만식 문학관은 연간 3만2,000여명의 관람객이 방문하고 있으며 대

부분 학생들이 주를 이루고 현장체험 학습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작가의 풍자와 해학 작품을 이해하고 학습하는 데 도움을 주어 국어순화운동에도 크게 기여해 왔다.

또한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근대국어와 사투리 낱말풀이 강좌 킷대회'를 개최하여 우수학생에게 기념품을 증정하는 등 전국 상당수의 학교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받아오고 있다.

/군산=김관곤 기자

# 장기기증으로 5명에 새 생명 찾아줘

### 군산시청 공무원 故 이화수씨

지난 9일 급환으로 세상을 떠난 군산시청 소속 공무원이 장기기증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준 사실이 알려져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군산시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35년여의 공직생활을 보내고 지난 7월 공로 연수에 들어간 고(故) 이화수(59, 지방행정주사·사진) 씨는 생전에 장기기증을 서약하고 평소에도 자신의 장기기증에 대한 소신을 여러 차례 가족들에게 밝혀왔다.

고인은 지난달 25일 갑작스런 질병으로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조치를 받았으나 급성심근경색 진단을 받았으



며, 이달 2일 보호지들은 의료진으로부터 회생이 힘들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가족들은 고인의 평소 신념에 따라 송고한 결정을 내리고 고

인의 각막과 신장, 간 등의 장기를 국립장기기식센터에 등록된 응급환자 5명에게 기증했으며, 광주 장기조직기증원에 인체 조직을 기증해 여러 환자들에게 고인의 마지막 선물을 전했다.

한편 고인은 지난 9일 전북대병원에서 장기기증을 마치고 11일 화장 후 군산상산공동묘원으로 안장된다.

/군산=김관곤 기자

### 긴 추석연휴 끝 일상으로...

### 익산시장, 시정동력 재점화

긴 추석연휴를 마친 정현을 익산시장(사진)이 시정 동력 재점화에 나섰다.

10일 오전 열린 시정현안 보고회에서 정 시장은 열흘간의 연휴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 공무원들에게 자칭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분위기를 다잡고 다시 현안업무에 박차를 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현을 시장은 연휴기간 내내 민생현장을 순회하며 소통행보를 계속해왔다. 정 시장은 "연휴동안 많은 시민들을 만나 시정에 대한 다양한 고견과 일침을 들을 수 있었다"면서 특히 공무원들의 친절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가 엇갈리는 만큼 직원들의 친절 마인드 향상을 위해 매월 친절공무원을 선발하여 인센티브를 주는 등 친절분위기 확산과 친절마인드 제고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 줄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10월에는 시의 가장 큰 행사인 천만송이 국화축제가 개최되는 만큼 시민들이 함께 하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고 대내외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 고맙습니다! 적십자회비

## 나눔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적십자회비는  
경주지진, 태풍 차바, 화재 등 각종 재난을 당한  
이재민과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적십자회비로 희망을 전하세요.

금융기관

가상계좌

인터넷

전화

편의점

신용카드 포인트

QR코드

홈페이지 [www.redcross.or.kr](http://www.redcross.or.kr)  
정기후원·긴급지원 문의 1577-8179

홍보대사 안재욱